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은 기독교 기반의 국제어린이양육기구이다. 1952년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캐나다, 미국, 스위스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영국, 프랑스, 호주, 대한민국을 비롯해 12개국을 기반으로 탄자니아, 볼리비아 등 전세계 25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제 구호 단체로 발전하였다. 국제본부는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25개국에서 1,800,000명 이상을 후원하고 있다 .

컴패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컴패션>

1952년 군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에버렛 스완슨(Everett Swanson) 목사는 국내에 머무는 동안 전쟁 고아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후 선교사 친구에게서 한국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볼 것을 제안받았고,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며 전쟁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은 기독교 기반의 국제어린이양육기구이다. 1952년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캐나다, 미국, 스위스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영국, 프랑스, 호주, 대한민국을 비롯해 12개국을 기반으로

· 애터미, 1,000만 달러 기부하며 컴패션과 동행 시작 <마케팅 ...

www.sisa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3

2021. 10. 16. · 애터미가 컴패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질병과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15일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에 1,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번 애터미의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기부는 컴패션 70년 역사상 최대 기부금이다. 애터미 오롯비전홀에서 ...

컴패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컴패션은 후원금의 80% 이상을 반드시 어린이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자세히 보기 2020 사업성과보고 어린이 양육 85.2 % ...

· 나의 컴패션 이야기

<https://grimwood.tistory.com/3>

2020. 7. 9. · 나의 컴패션 이야기. 임그림 2020. 7. 9. 21:20. 한국에는 전쟁 전후로 많은 NGO단체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설립하신 컴패션이다. 1952년부터 1993년까지 41년동안 10만여명이 넘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컴패션을 통해 양육받았고, 약 50년만에 ...

애터미, 한국컴패션에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기부.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소중한 존재.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글로벌 유통 기업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질병과 기아에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0월 15일 한국컴패션에 1,0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020. 5. 18. · 한국 컴패션과 함께 어린이 후원 시작 컴패션 코리아 · 정기 후원 · 기부. 한국 컴패션과 어린이 후원 시작하기. 오늘은 기부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해외 어린이를 위해 정기 후원을 결정한 계기를 통해 실제로 정기 후원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나의 컴패션 이야기

한국에는 전쟁 전후로 많은 NGO단체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설립하신 컴패션이다. 1952년부터 1993년까지 41년동안 10만여 명이 넘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컴패션을 통해 양육받았고, **약 50년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내가 컴패션을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12월이다. 그 전부터 컴패션을 알고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후원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학생정도인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3년정도 그 아이를 후원하였는데, 부끄럽게도 3년 후에 나는 후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진다는 것에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다. 무작정 돕고 싶다. 나도 후원하고 싶다. 는 생각에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책임 지지 못한 것이다. 두고두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컴패션 단체에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컴패션에 문의해보니, 내가 후원했던 아이는 다른 후원자를 만나 후원이 이어지고 있었다.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여전히 미안했다. 그 당시 우리 언니도 함께 1:1결연을 했는데, 언니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다. 언니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2017년 컴패션 콘서트에 초대받았고, 나도 함께 가게되었다. 션, 송은이, 황보, 제아 등 여러 연예인이 함께 했다. 공연은 정말 재밌고 감동적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 결연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마음 먹었다. 전에 헤어졌던 그 아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기적이지만 나의 미안함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2017년 11월. 두번째 아이를 만났다. 내가 만난 두번째 아이는 엘살바도르에 사는 만 4살정도 된 아주 귀여운 남자아이였다.

지금은 7살정도 됐겠네. 아이와 함께 편지를 주고 받고, 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이모 정도? 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언젠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해주고 싶다. "귀한 아이야, 너를 만나기를 항상 꿈꿔왔어.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

시는거 알지? 그리고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부끄러운 나의 과거와 캠페션에 대해 글을 쓰게된 것은 바로 캠페션의 '같이양육' 때문이다.

얼마 전, 캠페션에서 '같이양육'을 시작했다는 소개글을 보고 '이거다!' 했다. 나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10년 전 내가 한 아이를 책임지기에 부담스러웠던 것 처럼, 한 아이를 결연하기에 아직 이른 사람 3명이 모여 한 아이를 같이 양육할 수 있다. 1:1 결연은 매달 45000원을 후원하고, 같이양육은 한명에 20000원씩 세사람이 한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한다. 3:1결연인 셈. 아마 60000원 모두가 한 아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캠페션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라 생각된다. 어쨌든 참 좋은 제도인것 같다. 한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1 결연을 하고, 아직 한 아이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3:1 같이 양육을 하면 된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 금액이 한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꿈을 꾸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또 다른 아이의 '후원자'로 자라나는데 쓰여지고 있음을 믿는다.